

산·학 활성화에 의한 학회의 비상(飛上)을 위한 소고(小考)



이신영

강원대학교 본 학회 감사

영국의 자연생물학자이며, 진화론자인 찰스 다윈 (Charles Darwin; 1809-1882)은 “살아 남는 종(種)은 가장 강한 종이 아니고, 또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다”라는 유명한 적자생존 (適者生存)을 제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혁자생존(革者生存)이라 할 만큼 변화와 혁신이 생존의 주체가 되는 지식기반사회이며,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모임인 학회는 빠른 지식변화의 중심에 서있는 만큼 더욱 강력한 혁신을 도전받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는 그동안 남보다 먼저,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였으며, 또 변해서는 안될 것을 지키기도 하면서 변화와의 양과 질을 저울질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매우 적절히 대응해왔습니다.

실로, 산업 또는 응용 미생물의 중요성을 예견하고, 관련 학회의 필요성을 통감하여 1973년 한국산업미생물학회로 창립된 본 학회는 2002년도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21세기 생명공학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여 학회의 정체성을 재정립하였고, 이 때, 학회 창립 당시의 목적을 그대로 지켜 뿌리와 초심을 유지하는 결단을 보였습니다.

또, 일찍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이미 1991년도에 영문지(JMB) 창간호를 발간하였고, 다시 2000년도에는 우리분야에서 가장 먼저 영문지(JMB)의 SCI 등재 등에 성공하여

지역을 넘어 세계를 향한 명실공히 수준 높은 국제학회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마침표가 없다(Change is never ending)”라는 어느 한 책의 표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도 건너야 할 강과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누라, 자식빼고는 다 바꿔라”했던 어느 대기업 총수의 말처럼 우리학회가 더욱 우수한 국제학회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기반을 토대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난 35년간의 큰 성과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변화하는 변화와 혁신의 큰 물결 속에서 다소 그 인식과 대응이 부족하였던 산학연계의 연결고리 형성에 대해 재고하기를 제언합니다. 다음 아닌 신(新) 산학협동의 문제입니다.

학회의 미래 발전에 있어 기업의 중요성을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며, 그래서 우리 학회도 이미 정관 제1조에서 산학협동을 기본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4조(사업)의 제3항을 보면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서 미생물학, 유전공학 및 생물공학 분야의 산업계와의 정보교환 및 협력과 교류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아

올리, 제6조에서 관련 산업 종사자 및 관련자에게 회원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체와의 협동, 협력이나 참여유도, 산업체 회원수의 증가 노력 등에 관한 노력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거나 적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그동안의 기초과학에서 응용기술의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 실용화를 산업계에 전달하는 연결고리 형성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으며, 이의 유기적 연계체제에서 그 중심 역할이 대학이나 연구소가 아닌 기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新) 산학협력체제에의 인식과 대응이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 변화의 양과 질, 그리고 폭과 깊이를 고려한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하는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 산학협력에서는 기업과 대학(혹은 연구소)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상시소통 및 협력함에 있어 공급자 중심인 기존의 산학협력과는 달리 그 협력의 중심이 수요자인 기업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다릅니다. 그 목적도 순수 R&D 중심에서 제4대의 실용화/상품화 R&BD 중심이며, 지원범위도 부분적이 아닌 종합적 지원이고, 참여범위도 지엽적(교수별/과제별 분산방식)이 아닌 총괄적(교수/기업체/연구원/학생 등)이며, 평가도 SCI 등 논문실적 중심보다는 특히, 기술이전 및 사업화실적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산업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거의 폐쇄형으로부터 개방형 연계개발 구조로의 대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참으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큰 변화입니다. 이미 최근 들어 정부기관의 각종 연구비 지원 정

책이 바뀌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만큼 빠르게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구성과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학회도 이 과정에서 수요자인 기업의 수요와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연계하는 대대적인 자기변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산학협력의 양적, 질적 수준은 국가 경제성장은 물론,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깊게 인식하여 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성격의 본 학회도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산학협력과 산학연간 교류촉진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학회의 산학협력활동을 더욱 증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산학의 분산된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또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창출하여야 하며, 더불어 밀접한 연결고리 형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준 높은 국제수준의 학회로서만이 아니고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현재 일부 주장되고 있는 Industry Impact Factor가 높은 전문학회로서의 새로운 위상과 권위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에는 본 학회가 이론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학문적 수월성에 그치지 않고 관련 산업의 실용화를 선도하고 산업에 널리 보급하는, 그래서 산업을 생각하는 학회로서 거듭남으로써 기업이 학회를 통해 많은 것을 얻고, 또 학회도 산학협력을 통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산학협력 프로그램들이 개발,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소나마 학회의 새로운 산학협력 체제구축을 위한 인식과 대응에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라 생각하며, 귀중한 지면을 할애해 주신 학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